

기독교상담과 가르침의 관계

안 경 승 교수
(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가르침의 역할을 찾아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세우는데 있다. 기독교상담과 기독교 교육은 통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성숙과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자신들의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상담자는 기독교상담의 특징과 원리 상 가르침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두 가지 면에서 가르침과 상담의 연관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추적하였다. 첫째, 근래에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상담자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담에서의 교육적 기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둘째, 성경은 가르침과 치유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율법과 건강이라는 측면과 치유자이시며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성격을 통해 살펴보았다.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는 치유자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기능해야하고 이를 위해 성경적 원리와 자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중심단어 : 기독교상담, 기독교 교육, 치유, 건강, 가르침

I. 여는 글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올해 초(2006년) 서울시내 초, 중, 고교 19개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¹⁾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2천700여 명 중 자극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을 포함했을 때 최소 1개 이상 진단된 학생 수가 955명(35.8%)에 달했다. 또한 질환이 최소 1개 이상 중복 진단된 학생 수는 445명(16.7%)으로 집계됐다. 특정 공포증을 포함한 불안장애와 기분장애가 각각 25.1%, 4%를 차지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가 684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또한 MBC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 제작진은 위의 조사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5개 광역시의 초등학교 200여 곳에 전화설문을 하였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106명이었고, 자신의 반에 그런 아이가 없다고 대답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반에 평균 4-6명 정도가 ADHD 증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ADHD를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선생님들도 대부분 한 반에 그런 아이가 없거나 1명 내지 2명 정도 있다고 답했다.

이런 현실은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가르침"이라는 본질적인 사역과 함께, 정신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상담 활동이 필수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의 필요성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해야한다는 수동적인 의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에서도 상담은 필요하다. 혹 배움의 현장이 배우는 사람의 존귀함과 독특함이 파묻히고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는 곳이 되지는 않는지? 그런 실패자의 마음으로 사회 현장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상담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 초, 중, 고 내에 학급 담임이나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상담만을 담당하는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가 드문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학교 내에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교사를 지원하는 현직 교사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교육대학원 내에 상담을 세부 전공으로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상담 및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독교상담 현장

에도 교육과 상담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논증하려고 한다. 근래의 학문 연구의 추세가 총체적(holistic)이며, 협력적(synergistic)이고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다학문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상담의 두 학문 영역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상담의 교육적 접근과 교육 현장의 상담적 적용을 위한 근거를 세워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기독교상담의 중요한 방법론적 요소가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펴는 글

1. 기독교 교육과 상담

교육은 그 학문의 성격상 심리학, 철학, 문화 인류학 등을 포함하는 통합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병리성의 증가는 일반 교육 현장에 임상 상담적 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확대 시켰다. 교육심리학적 입장에서 주로 학습, 내지 진로 상담 분야에 제한되어 있었던 상담의 활용이 점차 그 적용 분야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상담은 학습자의 발달 및 교육 그리고 부적응 현상의 예방과 직접적인 돌봄과 치료에 걸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같다. 기독교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교육과 상담이라는 두 전문 분야의 관계성을 논할 때, 첫째, 목적의 동일함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신앙적이고 인간적 성숙을 도와주는 체계적인 접근이 기독교 교육이고 상담 역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²⁾ 기독교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까지 이르게”(엡 4:13)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³⁾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특히 그 분의 품성을 본받도록 돕는 탁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상담이다.⁴⁾ 그리고 기독교상담 역시 그 목적이 피상담자를 “변화” 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고전

10:31)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화되어 그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⁵⁾

Clinebell 역시 목회상담자적 입장에서 교육과 상담의 목적의 동일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과 상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둘 다 전인적 인간 성장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적 목적을 가진다. 상담은 성장이 감퇴된 사람들이 좀 더 건설적인 가치와 태도,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재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장 지향적 요법은 일상적인 관계와 학습상황에서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⁶⁾

기독교 교육과 상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체계를 형성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적 차이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정규적 교육 (Formal Education) 활동이고 기독교상담은 비정규적 교육 (Informal Education)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⁷⁾ 그러나 점차 방법론에 있어서도 통합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교육과 상담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질 때 효과적이다. 깊은 수준의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베풀 줄 이는 교사와, 학습과 훈련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의 기술적이고 능력 있는 지도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한 개인을 도울 수 있게 한다.⁸⁾ 상담자로서의 교사와 교사로서의 상담자는 이상적으로 교육 현장의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2005년에는 ‘돌봄 교육’으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그 철학과 원리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하였다.⁹⁾

셋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그 분의 교육자이자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누구 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돌보는 지도자의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사람을 섬기고 존귀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상담의 본질이다. 또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도입하셨던 비유적 접근은 학습자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

에서 출발점을 찾는 상담적 요소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알게 될 때 형성되는 인지의 재구조화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2. 기독교상담과 교육

1)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개념은 원래 정신질환의 유무를 알아내기 위한 정신 병리학적 의미로 시작되었다.¹⁰⁾ 그러나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개념이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신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 의미가 잠재능력을 성취시키고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¹¹⁾ 그래서 정신장애가 생겼을 때는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재발 예방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정신의 발달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확장된 개념은 단순히 치료적 도구로써 인식되어 오던 상담의 입지를 예방 교육이나 성장 지향적 교육의 분야에도 뿌리 내리게 하고 있다. 그동안 상담은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문제를 가진 한 개인이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를 통해서 치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활동은 문제를 지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줄 뿐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무신론 상담학자였던 Carl Rogers는 이미 1960년 대 말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며, 치료적 접근만으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¹²⁾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가 단기상담인 경우가 많다. 실제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상황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호

소하는 단기 상담 내지 위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이다. 약 2% 정도만이 임상 치료적인 장기상담을 요하는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상담 현장의 현실과 급변하는 세상의 추세에 부응하여, 상담 역시 우회적이고 통찰 지향적 장기상담에서 벗어나서 해결 지향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적 방법을 통합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상담학계 내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상담 모형을 탐색해 왔다. 첫째,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태도 형성과 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예방 및 성장 지향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의 발생 빈도가 많아 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처리나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비에 그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심리적 적응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정서와 왜곡된 인지와 행동을 유발시키는 여러 상황에 처했을 때, (1) 스스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자세, 융통성, 결단력, 모험심, 지각력 등과 같은 태도, (2) 내담자들의 가능성, 정체감, 대인관계 능력, 가치관 또는 의사결정능력 등에 대한 건강한 성장, 더 나아가 (2)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지력, 활력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 되도록 돕는데 상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⁴⁾

둘째, 특별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해 해결 방식, 풀어가는 절차, 과정 이해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내담자를 돕기 보다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¹⁵⁾ 문제 상황에 처할 때 적합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성취가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며,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과정을 배우게 한다. 개인에게 닥친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임상상담의 학문적 근거를 서구 심리학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인

문, 사회, 행동과학의 여러 다른 학문분야에 확장하고 있다.¹⁶⁾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상담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내담자의 행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인류학에 대한 연구, 개인과 주변 환경 간의 관계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생태체계이론, 예방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교육학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과 통합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언급된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핵심적인 상담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교육과 훈련”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하게 할 뿐 아니라, 특별한 강좌, 세미나, 실습(workshop)등을 통해서 문제를 지닌 사람들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습의 부재로 돌릴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의 원인과 대처 부족, 그리고 정체된 성장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내담자에게 변화의 참된 의미와 자신이 추구해야하는 변화의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는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더 나아가 상담자는 전달되어진 지식이 내담자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대처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직접 훈련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상담에 대한 예방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인식 변화와,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교육학적 접근을 하는 것은 기독교상담 분야에서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독교상담은 상담이 피상담자가 효과적이지 못한 행동을 벗어나고, 보다 적절하고 새로운 행동양태를 배우는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⁷⁾ 또한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적용을 통해 사람이 성화되어 간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

에 사람의 변화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원리를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Adams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with him)하는 과정에서(막 3:14) 가르침(teaching)과 상담(counseling)을 통해 제자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권면과 가르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며(골 1:28, 3:16),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상담자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¹⁸⁾ 아담스는 좋은 상담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가르침(formal teaching)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며, 피상담자의 문제해결을 도와 줄 때 “무슨 일이 왜 발생했는가를 정확하게 배우도록” 강권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⁹⁾

또한 사람들이 교육적 상담(educational counseling)의 기본적인 필요성 때문에 상담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²⁰⁾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부족과 왜곡된 정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을 바울의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첫째, 신자의 죽음과 그들의 부활,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 누구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막상 그들 중에 세상을 떠나 는 이들이 있자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13-18절을 통해 이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Clinebell은 교육적 상담을 특별히 목회자에게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목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아주 훌륭한 상담 가치들은 창조적 교육과 역동적 상담의 기술들의 혼합을 요구한다. 이러한 유형의 도움은 교육적 상담이라고 불리운다.”²¹⁾ 그는 교육적 상담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실, 개념, 가치, 신념, 기술, 안내 또는 조언이 필요한가를 알아내게 하고, (2)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발견하도록 도우며(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그리고 (3)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명한 결단들을 내리며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이러

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도와야 한다.²²⁾

Crabb은 그의 상담 체계 중에 2단계에서 피상담자의 문제행동을 성경적 행동으로 바꾸도록 상담자가 “권고(exhortation)”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3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생각은 성경적 생각으로 변화하도록 “교화(enlightenment)”시켜야 한다.²³⁾ 기독교상담학자인 Kirwan 역시 그가 설정한 세 단계의 상담과정에서 첫 번째 소속감의 공유(Imparting a Sense of Belonging) 단계와 세 번째 봉사(Service)의 단계 사이에 “교화”(Edification)의 단계를 위치시키고 있다.²⁴⁾ 이 교화단계에서 피상담자가 문제 가운데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특별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내면화하게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상담자는 자기 개방을 하되 데살로니가전서 5:11과도 같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둘째, 직면의 과정으로 로마서 15:14절 말씀과도 같이 서로 권하는 자들이 되어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권면을 하며, 셋째, 상담의 즉각성을 적용한 것으로 베드로전서 1:22의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Collins는 그의 제자화 상담에서 상담자가 교사의 역할을 담당해서 피상담자에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²⁵⁾ 그는 또한 기독교상담이 첫째,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 치유(traditional therapy),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 셋째, 완전히 별개로 발전하고 있는 코칭(coaching)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별히 상담의 코칭적 접근을 말하고 있다.²⁶⁾ 상담에 대한 코칭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학습과 훈련, 그리고 조언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Clinebell 역시 교육적 상담자는 피상담자로 하여금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술들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코치와 같다고 하고 있다.²⁷⁾

2) 상담자의 역할 변화

우리는 기존의 일반상담의 흐름을 통해 각 접근법에 따른 상담자의 역할

내지 상담자 상을 그려 볼 수 있다.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상담자는 심리 내적인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중립적 태도로 내담자의 무의식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관찰가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을 의식화 하도록 돕고, 자기 이해를 수립하거나 성격구조의 수정과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자이를 강화시켜가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중심적 상담에서는 치료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상담자는 어떤 특정한 증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삶을 살도록 성장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담자이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격자로서의 상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존중, 이해와 지지를 할 수 있는 내담자와 대등한 모습의 상담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인지행동수정치료에서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개입해서 직접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상담한다. 마치 상담자는 교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지시, 설득, 논박, 충고를 하는 일종의 교육과정을 수행하며, 태도변화의 결정적 요인인 인지적 구조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상담의 흐름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지적 상담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상담자는 의사가 아닌 선생이며, 내담자는 환자라기보다는 학생이 된다.

언급되어진 기존의 서구심리치료 이론에 근거한 상담자의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문화 상담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평가가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상담자의 역할이 치료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²⁸⁾

이런 역할 변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 상담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가 대개의 경우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나 조언 내지 지도를 구하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내담자는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표현 하는 것에 생소함을 느끼고 있고, 사실상 자율성과 책임감

을 길러 자기실현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²⁹⁾ 둘째, 상담자를 대등한 선상에 있는 전문인으로 여기는 서양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자가 스승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⁰⁾

셋째, 내담자를 이해하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내담자가 자기 식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효율적이다.³¹⁾ 넷째, 내담자의 개인 내적인 안녕 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회적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 납득하고 수용하며 실천에 옮기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주는 것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³²⁾

기독교상담에서는 상담자를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 선지자, 또는 목회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³³⁾ 이 중에서 권고, 훈계, 직면, 회개의 촉구 등과 같은 직설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제사장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피상담자가 자신의 문제와 필요와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경청하고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돕는 것이다.

목회적 역할로 상담자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어떤 전문가로 인식하기보다는 돌보고 돕는 자로 피상담자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수용, 지원, 서로 나누기, 죄와 연약함의 고백, 기도, 경청, 지시적인 충고 등이 상담의 일부가 된다.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동료 인간으로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각각의 역할이 갖는 차이점이 있지만, 콜린스는 “그리스도인 상담자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제사장, 선지자, 목회적)이 갖는 책임과 요구를 짊어지는 교사”라고 결론짓고 있다.³⁴⁾

우리 문화적 상황과 성경에 나타난 상담자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상담자의 상이 기존에 인식되어 오던 전문가, 의사, 촉진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사나 조언자, 또는 인도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경에서 나타난 가르침과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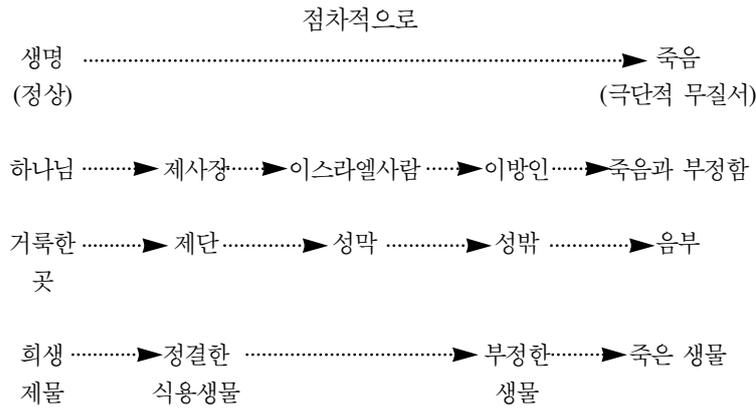
성경은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과 영육의 치유와 회복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³⁵⁾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예수님은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개입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신 것이 한 영혼을 돌보시면서 동시에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었다.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더하셨다.

Kelsy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는. . . 그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사람들을 만지거나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그들에게 명하시거나 그들을 붙잡히 여기시거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게끔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다.”³⁶⁾

1) 율법과 건강

치유와 가르침의 긴밀한 연관관계는 구약에서 보여 지는 율법과 건강의 관계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시대에는 질병이 하나님의 노하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인간의 연약함은 거룩한 규례를 어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내지 성결함을 지키지 못한 불결함과 부정함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몇 가지 상대적 도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긍정적 대 부정적, (2) 하나님 대 혼돈, (3) 생명 대 죽음, (4) 질서 대 무질서, (5) 정상 대 불구, (6) 정결함 대 불결함.

이런 상대적 개념을 그 정도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에서 드러나듯이 상황과 사람이 무질서해지면 할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율법의 원리(레위기 11-15장)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준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더 나아가 생명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포함한 부정함과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그 앞에 허락되지 않는다.³⁸⁾ 그래서 레위기에는 모든 부정함과 비정상적인 것,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질병 등에 대한 규례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본래 생명과 온전함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분이 택한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결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왜곡되고 병든 인간의 상태가 온전해 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대된 관점을 제공해 주셨다(요 9: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부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건강과 평강의 삶을 위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반영하여 의사이며 신학자인 Wilkinson은 네 가지로 건강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1) 건강은 기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실체

로 여겨지는 인간 존재의 전인성과 실현의 상태이다; (2) 윤리적 측면에서의 건강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형성된다; (3) 영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올바른 관계인 의(義)로 형성된다; (4) 신체적 상태에서의 건강은 건강하고 장수의 삶에 의해 드러난다.³⁹⁾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통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순종이 필수적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포함한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며 순종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신 6:4-9).

이런 점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 부분이 잠언서이다. 잠언 3장 3절 이하에서 “인자와 진리로 . . . 마음판에 새기고. . .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에서 정서(잠 12:25, 13:12, 14:10, 13)와 지성(잠 10:8의 지혜, 15:14의 명철, 15:28의 생각)이나 의지(잠 5:12)를 나타낸다.⁴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에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잠 3:7-8). 온 마음(지성, 의지, 정서)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지혜로운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몸에 양약이 되고 활력이 된다(잠 4:22). 또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하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결과 골수의 건강이 있다는 것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영적 건강이 마음과 더 나아가 육체적 건강에 까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잠 12:4, 14:30, 15:30, 16:24, 17:22).

잠언 16장 21절에서는 입이 선한 자의 말은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뜻에서 학식을 더하게 한다(잠 16:21)고 했다. 23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입을 슬기롭게 한다,” 즉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그 결과 그의 입술은 또 한

번 지식을 더하게 된다.

24절을 주해하면서 Buzzell은 이렇게 말한다. “선한 말은 벌집의 꿀처럼 달고 먹음직스럽다. 격려하고 달래며 전하는 적합한 말은 상쾌하게 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한다”⁴¹⁾ 선한 말이 전달되고 그 선한 말을 자신의 것으로 한 사람은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오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치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점에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드러나게 되었고 특별히 그 분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기간 동안 비유와 격언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며 사람들의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셨다. 그분의 가르침과 치유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막 6:2), 더 나아가 가르침과 치유가 통합된 그 분의 상담은 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오게 했다. 이 점을 신약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붙여진 칭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추적해 가려고 한다.

첫째, 이사야 9장 1-9절에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 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의 죄는 민족에 흑암을 가져오게 했지만, 택한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6절).

고난의 흑암 가운데서, 사람들은 평강과 은혜의 빛을, 죽음의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그리고 무지의 흑암 가운데서 지식의 빛을, 죄의 흑암 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보았다. 그들의 현 주소가 완전히 뒤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⁴²⁾

특별히 그 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Wonderful Counselor)라고 칭해지고 있다. 구약학자 영(Young)은 기묘(wonderfu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표현이 주어졌다는 것은 선지자의 강조점이 메시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 . . 이 단어의 어원이 시편 78:12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되새겨주게 한다. 즉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을 묘사하면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⁴³⁾

이사야는 또한 모략(counsel)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11장 2절에서 장차 메시아에게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counsel)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 16장 3절에서는 “모략을 베푸는 것(Give us counsel)”이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상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모략이라는 단어는 “조언하다. 충고하다. 의도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담은 그 성격에 있어서 교훈을 주고 조언과 충고를 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로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온전함을 회복케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Boghosian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⁴⁴⁾

둘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Son of David)”이라고 불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던 신약 성경의 현장에는 치유 사역이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사람들의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사 25:5-6, 29:18-19, 53:4)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약학자 Duling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마태는 (치유한다)라는 동사를 선호했으며,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치유적 예수님이셨고 치유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힘썼다.”⁴⁵⁾

또한 마태복음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로우시고

공휼이 풍성한 치유적 속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불쌍히 여기사(to have compassion)”라고 표현된 다섯 구절 중에 네 곳에서(마 9:36, 14:14, 15:32, 17:20, 20:34),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같이 번역된 “불쌍히 여기소서 (to have mercy)”라고 기록된 여덟 구절에서 다섯 곳에서(마 9:27, 12:23, 15:22, 20:30, 31)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⁴⁶⁾ 예수님의 우리를 공휼히 여기는 마음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Melchert는 예수님의 치유가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한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적, 그리고 그 개인의 욕구 안에 내재된 영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둘째, 예수님은 그 필요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요에 응답해 주는 분이셨다.⁴⁷⁾ “나는 메시아니까 당신은 의사에게 가야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모든 치유 사건에서 “주(Lord)” 또는 “다윗의 아들(Son of David)”라는 칭호가 등장하고 있다. 고침을 받고자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당시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특히 삼하 12:11-16)에 근거해서,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Witherington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1)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보다 위대한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되심, (2) 지혜, (3) 초기 지혜문서에 묘사된 지혜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되심.”⁴⁸⁾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은 지혜의 대표자인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 보다 더한 지혜로 그 분의 비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이것이 사람들의 심령과 육신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

셋째, 복음서에만 56번의 “선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 붙여진 호칭이었다.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신 응답으로 되어 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치유와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하게 될 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 한 선생”⁴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예수님은 26번 환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쫓는 이적을 행하셨고, 27번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아 볼 때, 첫째, 예수님은 치유로 가르칠 대상인 군중들을 끌어 들였고, 둘째,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리심을 보여 줄 뿐 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담겨 있는 중심적인 주제를 더 확고히 하는 교육적(pedagogy) 목적이 있었다.⁵⁰⁾

셋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현장에서 만이 아니고, 치유현장에서도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했다. 또한 치유 사건에서 만이 아니고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해 주기 원하셨다. 학습자에게 성숙할 것과 온전할 것과 자비로울 것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을 닮아 가기를 원했다(마 5:43-48; 눅 6:27-36). 더 나아가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셨다. 제자들을 직접 치료자로 내보내는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효하심으로 사역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기대하셨다.⁵¹⁾

넷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돌보셨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즉 혈루병 여인, 문둥병자들, 소경들, 거지들, 중풍병자들, 귀신들린 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셨고 이들이 가족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Wink는 독자와 학습자들이 복음서 말씀을 접하면서 “내 안에 치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 통찰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있다.⁵²⁾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회복의 날을 소망하였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하나

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완성하는 것과 함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치유의 사건을 포함한 것이었다. 생명과 온전함과 질서의 근원이며 부여자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실제로 약한 자를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참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속성과 생명과 건강과 온전함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입증되었다. 구약의 말씀이 부정한 것을 금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은 죽음과 온갖 부정한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분의 치유 사역은 율법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 앞에 둘 수 없는 그 분이 생명과 구원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이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 분의 치유를 통한 가르침과, 가르침을 통한 치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예수님을 모델로 삼게 될 때, 기독교상담은 인간을 괴롭히고 약하게 하는 영육의 문제들에 대한 치유와 함께 지혜로운 가르침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는 교육과 상담이 통합되어 있었으며, 상담을 위해 가르침이, 가르침을 위해서 상담이 교차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III. 닫는 글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상담이라는 고유한 실천신학의 각 분야가 그 학문적 전문성을 더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신들

의 전문성과, 함께 하는 통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교육과 상담을 통합하게 하는 상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상담자의 역할 변화는 단지 일반 상담 현장의 현실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역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미 현장에서 씨름하는 사역자들은 저들의 사역을 통해 교차적으로 상담의 기술과 교육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회 내에서 교육 기관 내에 심리검사가 행해지고 상담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가정의 달이면 각종 상담 세미나와 치유집회가 활발하게 개설되고 있다. 기독교상담소는 단지 경영적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필요에서 상담 학교를 열고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다. 목회 상담자들과 평신도 상담자들은 실제로 단기상담을 통해서 실제적인 조언과 교훈을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다.

성경은 영육이 건강하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 분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상담자가 피상담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얼마나 바르게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하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고 필수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교사이며 치유자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드러내 주셨다. 공훈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고치시는데 정성을 다하셨다. 또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그들 심령에 새겨지도록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었다. 이제 그 일이 기독교상담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 일을 수행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게리 스위트 & 스티브 그리브링.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셀그룹 클리닉』. 박중훈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부. 2004.
- 게리 R. 콜린스. 『크리스찬 코칭』. 정동섭 역. 서울: IVP. 2004.
- .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로렌스 J. 크랩. 『성경적 상담』.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9.
- 몰튼 켈시.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86.
- 시드 부젤. 『잠언』. 김태훈 역. 서울: 두란노. 2004.
- 이석철. “교육을 통한 치유.” 『치유목회의 기초』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197-238.
- 이형득. “변화하는 시대의 상담모형.” 『대학생활연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vol. 16 (1 1998).
- 임규혁.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분석.” 『교육문제연구』. vol. 14 (1 2001).
- 장성숙.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vol. 14(3 2002): 547-561.
- 장성숙.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vol 18 (3 2004): 15-27.
- 정소영. 『기독교 교육과 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정정숙. “교사와 기독교 교육상담.” 『기독교교육연구』. vol. 3 (1 1992): 40-62.
- 제이 아담스. 『상담학 개론』.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찰스 F. 멜처트. 『지혜를 위한 교육』. 송남순,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하워드 J. 클라인벨. 『목회상담신문』.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 『성장상담』. 이종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Adams, Jay E.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1977.
- Boghosian, Jack. “The Biblical Basis of Strategic Approaches in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 11(2 1983).
- Clinebell, Howard J. *Mental Health Through Christian Community*. New York: Abingdon, 1965.
- Dayringer, Richard. “A Learning-Theory Approach to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Psychology* 20(March 1969).

-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and Kegan, 1966.
- Duling, Dennis C. "The Therapeutic Son of David: An Element in Matthew's Christological Apologetic." *New Testament Studies*. vol. 24(1978).
- . "Matthew's Plurisignificant "Son of David" in Social Science Perspective: Kinship, Kingship, Magic, and Miracle." *Biblical Theology Bulletin*. vol. 22(1992).
- Meier, John P. *A Marginal Jew: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New York: Doubleday, 1994.
- Kirwan, William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1984.
- Powlison, David. "Biblical Counseling in the Twentieth Century."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ed., J. F. MacArthur, JR. & W. A. Mack. Dallas: Word, 1994: 44-60.
- Wenham, Gordon J. "Christ's Healing Ministry and His Attitude to the Law." In *Christ The Lord*, ed. H.H. Rowdo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2.
- Wilkinson, John, *Health and Healing*. Edinburgh: The Handel Press, 1980.
- Witherington, III, Ben. *Jesus the Sage: The Pilgrimage of Wisdo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Young, Edward J. *The NICE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 MI.: Yardman.

[후주]

- 1) 『국제신문』 (서울), 2006. 4. 17.
- 2) 정소영, 『기독교 교육과 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30.
- 3) 정정숙, "교사와 기독교 교육상담" 『기독교교육연구』, vol. 3 (1 1992): 43.
- 4) 정소영, 『기독교 교육과 상담』, 32-33.
- 5) David Powlison "Biblical Counseling in the Twentieth Century,"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ed., J. F. MacArthur, JR. & W. A. Mack (Dallas: Word, 1994), 58.
- 6) 하워드 J. 클라인벨, 『성장상담』, 이종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78.
- 7) 정정숙, "교사와 기독교 교육상담," 45.
- 8) 정소영, 『기독교 교육과 상담』, 30.

- 9) 서울시대안교육센터가 주최하여 “따뜻한 돌봄과 배움이 가능한 작은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5년 11월 26일 개최되었다.
- 10) 임규혁,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분석,” 『교육문제연구』, vol. 14(1 2001): 2.
- 11) Howard J. Clinebell, Jr., *Mental Health Through Christian Community*(New York: Abingdon, 1965), 17.
- 12) 게리 스위트 & 스티브 그리브링,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셀그룹 클리닉』, 박중훈 역(서울: 한국강해설교학술출판부, 2004), 87.
- 13) 장성숙,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vol. 14(3 2002): 549.
- 14) 이형득, “변화하는 시대의 상담모형,” 『대학생활연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vol. 16 (1 1998): 4-5.
- 15) Ibid., 6.
- 16) Ibid., 7.
- 17) Richard Dayringer, “A Learning-Theory Approach to Pastoral Counseling,” *Pastoral Psychology* 20 (March 1969): 39-43.
- 18) 제이 아담스, 『상담학 개론』, 정정숙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516.
- 19) Ibid., 475.
- 20) Jay E. Adams,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1977), 114.
- 21) 하워드 J. 클라인벨,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497.
- 22) Ibid., 499.
- 23) 로렌스 J. 크랩, 『성경적 상담』,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9), 175-194.
- 24)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1984), 159-162.
- 25) 게리 R. 콜린스,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66.
- 26) 게리 콜린스, 『크리스찬 코칭』, 정동섭 역 (서울: IVP, 2004), 11.
- 27) 클라인벨, 『목회상담신론』, 501.
- 28) 장성숙,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vol 18 (3 2004): 16.
- 29) 장성숙,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553.
- 30) Ibid., 554.
- 31) Ibid., 558.
- 32) 장성숙,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22.
- 33) 콜린스, 『훌륭한 상담자』, 233-234.
- 34) Ibid., 234.
- 35) 여기서 치유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회복 사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상담과는 교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teaching),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preaching),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healing) 사역(마 4:23)이 현대에 교수(instruction), 설교(sermon), 상담(counseling)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석철, “교육을 통한 치유,” 『치유목회의 기초』(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210.

- 36) 몰튼 켈시,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86), 99.
- 37) Gordon J. Wenham, "Christ's Healing Ministry and His Attitude to the Law," in *Christ The Lord*, ed. H.H. Rowdo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2), 123-124.
- 38)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and Kegan, 1966), 129.
- 39) John Wilkinson, *Bible and Healing* (Edinburgh: The Handel Press, 1980), 4.
- 40) 시드 부겔, 『잠언』, 김태훈 역 (서울: 두라노, 2004), 32.
- 41) Ibid., 102.
- 42) Edward J. Young, *The NICE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 MI.: Yardman), 325.
- 43) Ibid., 333.
- 44) Jack Boghosian, "The Biblical Basis of Strategic Approaches in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 11(2 1983): 106.
- 45) Dennis C. Duling, "The Therapeutic Son of David: An Element in Matthew's Christological Apologetic," *New Testament Studies*, vol. 24(1978): 388-99.
- 46) Dennis C. Duling, "Matthew's Plurisignificant "Son of David" in Social Science Perspective: Kinship, Kingship, Magic, and Miracle," *Biblical Theology Bulletin* vol. 22(1992): 112.
- 47) 찰스 F. 멜처트, 『지혜를 위한 교육』, 송남순, 김도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8-385.
- 48) Ben Witherington, III, *Jesus the Sage: The Pilgrimage of Wisdo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350.
- 49) Ibid., 325.
- 50) John P. Meier, *A Marginal Jew: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New York: Doubleday, 1994), 1043-1044.
- 51) 멜처트, 『지혜를 위한 교육』, 385.
- 52) Walter Wink, *Transforming Bible Study* (Nashville: Abingdon, 1989), 161; 멜처트, 『지혜를 위한 교육』, 386에서 재인용.

【 Abstract 】

Interrelation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Teaching

Kyung Seung Ahn
(Ph.D.,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rich the significance of teaching in Christian counseling both in its scope and depth by demonstrating that counseling and education can play crucial roles in helping counselee become a mature Christian.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Christian counseling share the same biblical foundation with the ideal of Christian education. The main discussion of this paper consist of two section: First, we briefly review the change of counseling itself and its role in the changing society and derive the important feature of interrelation between counseling and education. In the second section, we show that Jesus as the healer is inseparably linked with Jesus as the teacher. The Bible places a premium on teaching and healing as the necessary ingredient to move people from disorder to order. Teaching is the therapeutic healing event in which insight becomes experience, impurity transforms into purity, and disorder changes into order. Jesus' character of the teach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his healing proces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Christian counselor serves as not merely a curer, but also as an teacher who gives advices and teachings. Because a role of proper teacher is to make counselee a mature disciple of Jesus, Christian counselor should have biblical norms to exert an effect upon a counselee.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counseling, teaching, healing, health